

노벨상의 계절

노벨상의 계절이 돌아왔다. 올해의 노벨상 수상자는 사울 펄무터, 브라이언 슈미트, 아담 리스(물리학), 대니얼 셰시트먼(화학), 브루스 보이틀러, 올레스 호프먼, 랠프 슈타인먼(생리·의학)이라고 한다. 특히 랠프 슈타인먼은 세상을 떠난 지 사흘 만에 수상 통지가 왔다니 유족들은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뽕덕어멈 시리즈

그런데 하늘이 높아지면서 무슨 고약한 기운이 퍼져 '극히 일부' 언론의 기억력이 마비되는 건지 해마다 똑같은 질문이 되풀이된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언제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우리 과학자는?”

“어떻게 하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는 “입시 위주, 점수 위주의 암기식,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러주는 자기주도 학습형 교육을 해야 하며……”로 시작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과학 인프라 구축이 필수조건이다”로 끝나는, 그야말로 암기한 것이 분명한 ‘분석과 대책’이 줄줄 흘러나온다. 이젠 무슨 ‘뽕덕어멈 시리즈’도 아니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수준은 당

장 내년에 누가 노벨상을 받는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벨상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줄줄이 늘어놓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 과학자 중 누가 노벨상에 가장 근접해 있는지, 도대체 ‘근접해 있다’고 할 때 쓰는 ‘거리’의 ‘수학적 의미’는 무엇인지 나도 덩달아 궁금해지지만, 그동안 노벨상과 별로 관계가 없는 줄 알았던 사람이 심심찮게 수상하는 것을 보면 노벨상과의 거리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내가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질문은 바로 마지막 질문이다. 우리는 이미 똑같은 질문을 수도 없이 던졌고 거의 똑같은 대답을 수도 없이 들었다. 그런데도 왜 똑같은 질문을 지금도 계속해서 던지는 걸까?

지난 8월 7일부터 13일 카이스트에서 열린 제5회 아시안 사이언스 캠프에 참석한 노벨상 수상자들 7명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노벨상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그들의 대답도 거의 똑같다. 몇 개만 발췌해보자.

리 위안저(1986년 화학상): “일단 노벨상을 목표로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은 과학자가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라.”

고바야시 마코토(2008년 물리학상): “노벨상은 보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가 즐기는 것을 찾고 그것을 동



글_ 강석진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교수
sjkang@snu.ac.kr
글쓴이는 서울대 수학과 졸업 후 미국 예일대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젊은과학자상(1998년), 한국과학상(2006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2009년) 등을 수상했다.



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론 치체노바(2004년 화학상) : “나는 노벨상을 노리고 연구를 한 것이 결코 아니다. 열정을 가지고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이렇게 대답이 뚜렷한데 더 이상의 무슨 질문이 필요할까? 어쩌면 이렇게 ‘노벨상 타령’을 하는 것이 그동안 노벨상을 받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일지도 모른다.

종이 한 장의 차이

그런데 요즘에는 수학계에도 ‘노벨상 바이러스’ 비슷한 것이 퍼지는 것 같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노벨상에는 수학상이 없다. 그 대신 4년마다 열리는 국제수학자대회(ICM)에서 만 40세 이하의 젊은 수학자에게 필즈메달을 수여한다. 최근에 ‘아벨상’이 생기기도 하고, ‘울프상’이나 ‘쿨상’ 같은 권위 있는 수학상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필즈메달’이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쉽게도 그동안 한국 사람이 필즈메달을 받은 적은 없다. 그래서 수학자들도 4년마다 한 번씩 ‘노벨상’을 ‘필즈메달’로 치환한 ‘뽕덕어멈 시리즈’를 견뎌내야 한다. 게다가 오는 2014년에는 서울에서 국제수학자대회가 열릴 예정이므로 그 강도가 더 심해졌다. 2014년에 한국 사람이 필즈메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식으로 가슴 안쪽을 찢러 온다. 어이가 없는 것은 일부 수학자들마저 이런 ‘뽕덕어멈 시리즈’에 가세하여 기세를 올린다는 것이다.

“이젠 우리도 필즈메달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수학자대회가 남의 잔치가 되면 망신인데?”

심지어는 이미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젊은 수학자들에게 “아, 필즈메달 타 쥐야지?” 하며 노골적인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들이 조국에 필즈메달을 바치기 위하여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의 ‘극히 일부’는 실제로는 우리나라 수학계의 실력을 믿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나도 ‘뽕덕어멈 시리즈’ 스타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수학계는 이미 세계적으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으며 몇몇



▶ 필즈메달

수학자들은 그야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랄 것이 없는 정도까지 이르렀다. 이미 필즈메달 후보에 올랐던 사람도 있으며, 그게 언제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가까운 장래에 필즈메달을 받는 사람도 나올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대한수학회가 국제수학자 대회를 유치하려고 준비할 때의 기본 목표는 간단명료했다. 이 기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수학 문화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그 안에는 어린 아이부터 전문 수학자까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학을 사랑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과 필즈메달은 우수한 젊은 수학자들 중 운이 좋은 사람이 받는다는 분위기가 될 정도로 수학 연구의 질을 높이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수학은 원래 어렵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정리를 찾아 증명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러므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하는 것은 정말×정말 어렵다. 그런 수학자들의 마음을 되도록이면 편하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어야 스스로 불타올라 더욱 아름다운 정리를 만들어내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필즈메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동료들을 점잖게 타이른다.

“상 받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 즉시 반격이 들어온다.

“그런 당신은 왜 주는 상마다 다 받는 건데?”

아니, 그건 다른 얘기잖아? 상을 받으려고 공부하는 것과 열심히 공부하다보니 상을 받는 것, 그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수학 문화의 커다란 차이를 가져오는 것 아닐까? 그런데 내가 무슨 필즈메달 근처라도 가 봤던 것처럼 잘난 척하며 말하고 있다. 나 참. **ST**